

“檢 탄핵 발의” Vs “정치적 테러”

신당-한나라 'BBK 수사 결과' 공방 격화

대선이 8일 남은 11일 현재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의 'BBK 검찰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신당은 BBK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10일 BBK 수사결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번 회기 내에 국정조사법 발동과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를 예고하는 등 전면 공세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거듭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잠재 권력에 굴복한 정치검찰에 대해 오늘 탄핵소추를 발의한다”면서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부 제1부장, 김기동 특수부 제1부장 등 BBK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해찬 선대위위원장도 “법사위에서 (BBK) 특검법을 놓고 상정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검법, 탄핵소추안 등 관계법안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

적 테러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신당이 추진하는 검찰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안, 국정조사를 당 차원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결절차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물리적 테러로 저지한다면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인데 다 알고도 이렇게 발의했다면 이는 정치적인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처리토록 돼 있고,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신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또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이날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에 대해 “수사를 하면 범여권에서 김경준에게 각서를 써준 것들이 나올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정동영 후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김경준을 접촉했

다”고 주장했다. 신당과 한나라당이 이처럼 검찰수사 발표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면서 신당 의원 142명의 요구로 이날부터 소집된 제270회 임시국회를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극심한 등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백낙청 교수를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인사들로 구성된 7인 모임은 10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와 관련, “기득권에 쫓겨 국민을 무시한 검찰의 태도는 처음부터 정당성이 부정되고 사회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10일 BBK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昌·文, 내년 총선에 눈높이 맞추나

昌 “자유민주 신봉 세력 모아 창당” 文, 대선후 새로운 인물 영입 구상

17대 대선에서 보수와 개혁 양 진영의 ‘대안카드’로 나선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눈높이가 대선을 넘어 내년 4·9 총선에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가.

대선을 8일 남긴 현재 이회창 후보는 검찰의 BBK 추가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지지율 하락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밀려 3위권으로 내려앉았고, 문국현 후보도 5~6%의 저조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두 후보가 모두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대선 이후를 내다본 언행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9일 대전 유세에서 “창당을 통해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겠다”며 “양심적인과 정직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 세력을 모아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주도세력으로 커 갈 것”이라며 대선 이후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등과 손을 잡고 창당에 나설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의 창당선언은 대선 전후를 모두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선 대선과 관련, 당초 예상만큼 지

지율이 오르지 않던 와중에 BBK 수사결과 발표 이후 지지율이 3등으로 빠지는 조짐이 나타나자 흔들리는 지지자의 마음을 잡고 ‘보수 대안 후보론’의 득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후보단일화를 이룬 국민중심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 총선 공천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나라당 내부가 흔들리면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親朴)계 의원들이 함께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일부 세력도 합류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에서 창당선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보수당’ 창당준비위가 오는 12일 서울 올림픽컨벤션 센터에서 서울시장 창당대회를 갖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국현 후보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총선을 겨냥한 행보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가 유지되고 범여권 단일화가 끝내 무산된다면 대선 이후 신당을 포함한 범개혁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진영도 분화를 맞게 돼 결국 큰 틀에서의 정계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은 일단 대선을 잘 치러서 유의미한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신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BBK 때문에... “鄭-文 단일화하라”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법사위도 헛바퀴 공방만
지역원로·시민단체 농성

제270회 임시국회가 10일 소집됐으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격돌로 본회의가 무산되는 첫날부터 파행했다. BBK 추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를 놓고 양당 간의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신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BBK 사건 수사결과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BBK 특검법’,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와 국정조사법 발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에서 우선 검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대선을 노린 정략적 발상이며,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국회를 여는 것은 국민주권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회창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검찰의 BBK 추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밀고당기기식 공방만 주고받았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6~7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 헛바퀴 공방이다. 신당은 BBK특검법 문제는 추후 논의하더라도 법무부 업무보고라도 받아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한 사안을 협의해준 뒤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중 앙선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당분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의사일정에 합의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관례적인 것에 불과하며, 협의가 결렬되면 본회의 개최 요구에 의장도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당이 검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검찰의 BBK 추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밀고당기기식 공방만 주고받았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6~7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 헛바퀴 공방이다. 신당은 BBK특검법 문제는 추후 논의하더라도 법무부 업무보고라도 받아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한 사안을 협의해준 뒤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중 앙선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당분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의사일정에 합의

광주·전남지역 재야 원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양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광주·전남민주평화국민회의와 광주·전남인민평화국민회의 등 지역 재야 인사와 시민·사회단체대표 50여명은 10일 오후 2시 광주 YMCA 무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부패정치세력과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단일화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점거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수구부진세력, 그리고 부패정치세력의 3자 대결구도가 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단일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이 끝난 직후 10여명의 대표단은 양 당 중앙당사를 향의 방문하기 위해 상경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BBK 수사 검사 탄핵, 전직 법무장관·중수부장 檢 비판

검찰 ‘사면초가’

대선 정국의 격랑 속에 검찰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검찰의 BBK 수사 결과에 반발해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현직 검찰총장 등 검찰 핵심 간부들이 이른바 삼성의 ‘로비 대상 검사’ 명단에 올라 있다. 여기에 전직 법무부 장관과 대검 중수부장이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는 직격탄을 날려 검찰의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법여권의 공세=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김씨를 기소했던 주임 검사인 최재경 특수1부장, 또 김씨를 신문했던 김기동 특수1부 부장 등 3

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정동영 신당 대선 후보는 9일 광화문에서 열린 검찰 규탄대회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과 특정 재벌(삼성), 수구부패정당 후보가 결탁해 동맹군을 이루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양심만이 이러한 동맹을 저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 무릎을 꿇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내부 인사 비판=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엄지유세지원단장은 9일 광화문 규탄대

회에서 “참여정부에서 검찰 독립을 보장해준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며 “국민은 검찰 발표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여기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전직 검찰 고위간부도 이번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글을 신당에 보냈다. 이 간부는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투쟁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이 후보와 김경준씨의 사일 모델은 무엇이고 각기 제공한 것이 무엇이고 동업하면서 진행한 일이 무엇

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면초가 검찰=일단 검찰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주장하는 검찰의 김경준 씨 회유·협박을 통한 수사 결과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12명과 수사관 등 60여 명이 수사에 참여했고 이들의 정치적 성향 등이 모두 다른데 수사팀이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면 당연히 내부에서 먼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합에 가입된 재직자 □ 교육수료후 현금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향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시험대비, 동계방학 대강좌!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안내

행정직	교수	관세	감사	법원	검찰	고정직	보통직	소방직	전차	지식	토목	건설	물리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2월 17일 주·야 (총화)반모집 (합재예알)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kjkimyoung.co.kr

Final Course 개강

12월 3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론?	
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전문대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이상,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정점서) ☎ 227-9088

www.simmons.co.kr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서있을 때 'S' 라인이 누웠을 때도 그대로 세계특허 시몬스 코 매트리스가 가능합니다

136년 시몬스침대의 역사는 편안함의 역사였습니다. 1870년 시몬스 1호 매트리스를 발명하여 인류에게 편안한 수면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시몬스의 편안함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스프링은 보폭에 맞지 않고 다리는 보폭에 맞지 않습니다. 행위는 보폭할 수 있도록 세계특허 시몬스 코 매트리스의 편안함을 꼭 느껴보십시오. 휴식중에 주의하십시오.

www.simmons.co.kr

취급대리점	롯데백화점 (062)221-1760	현대백화점 (062)510-7851	빛고을가구백화점 1층 (062)959-5800	금남로점 (수영점) (062)527-1575
-------	---------------------	---------------------	---------------------------	--------------------------